

사회주의전면적건설시기 소년단에 대한 청년동맹의 지도를 개선강화하도록 하신 령도업적

부교수 고 성 심

1. 서 론

1960년대초에 이르러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사회주의혁명의 력사적승리가 이룩되고 사회주의기초건설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튼튼히 서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자립적경제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었다.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사회주의건설의 첫 고지를 점령한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건사업이 전면적으로 벌어졌으며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을 비롯한 민족문화건설분야에서도 낡은것을 청산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수립된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소년단의 구호를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로 제정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정하여주신 소년단의 새 구호에 의하여 우리 나라 소년운동은 전체 소년단원들을 앞날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울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투쟁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변천된 현실은 새로운 구호의 요구에 맞게 소년단에 대한 민청의 지도를 개선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1권 379페이지)

소년단원들은 혁명의 꽃봉오리이며 민청의 교대자이다. 그러므로 민청이 소년단에 대한 지도를 잘하는것은 모든 소년단원들을 미래의 사회주의건설자로,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였다.

이 글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심화발전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소년단원들을 지도방조하는것을 당의 후비대인 민청원들, 로동당시대 청년들의 영예로운 임무로 내세우시고 소년단에 대한 청년동맹의 지도를 개선강화해나가도록 하신 령도업적에 대하여 해설하려고 한다.

2. 본 론

룡남산마루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할 원대한 구상을 천명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소년단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청년동맹이 소년단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여 소년단원들을 믿음직한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워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소년단에 대한 청년동맹의 지도를 개선강화하도록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소년단사업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아동단의 사업방법과 경험을 구현하여 우리 나라 소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해나갈수 있게 하신것이다.

우리 나라 소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되었다.

우리 나라 소년운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어주신 새날소년동맹과 아동단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어주신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소년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의 임무는 소년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광범한 군중을 계몽하고 각성시켜 그들이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날소년동맹의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원칙과 사업체계, 동맹원들의 생활규범을 규정해주시였다.

새날소년동맹에서는 여러 지역에 동맹지부를 내오고 거기에 소년들을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동맹조직을 급속히 확대하였으며 동맹내에 정연한 사업체계와 질서를 세웠다. 또한 《새날》신문을 창간하고 모든 동맹원들을 선진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한편 광범한 군중을 계몽각성시켜 우리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도 잘하였다.

아동단은 어린이들을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소년들의 반일적이며 혁명적인 정치조직으로서 당 및 공청과 함께 3대동맹을 이루고있었다.

조선의 독립과 전세계무산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는 구호밑에 아동단원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워나가는것은 아동단조직들의 기본사명이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아동단원들은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자라나게 되었으며 피어린 투쟁속에서 김금순과 같은 소년혁명가, 소년영웅들이 수많은 배출되었다.

참으로 항일혁명투쟁시기 새날소년동맹과 아동단의 고귀한 업적과 사업경험은 우리 나라 소년운동의 력사적뿌리로서 대를 이어 계승하고 빛내여야 할 귀중한 재보이다.

항일아동단의 사업방법과 사업경험을 소년단사업에 구현하는것은 소년단조직을 전투적이고 규률있는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소년단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동맹일군들이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자료들도 연구하고 항일혁명투사들을 만나 생동하고 깊이있는 항일아동단의 사업경험을 전면적으로 찾아내도록 하시였다.

이 과정에 항일아동단의 조직생활체계와 상징, 의식활동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찾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2(1963)년 10월 민청중앙위원회에서 이미 얻은 자료에 기초하여 항일아동단의 혁명적인 조직생활체계를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소년단조직들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아동단의 성격검토회와 같은 생활체계를 받아들이며 소년단원들속에서 아동단의 상징과 의식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대렬적면모를 개선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항일아동단의 조직생활체계를 소년단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소년단사업요강도 고치고 참고자료도 만들어 내려보내며 소년단사업을 지도하는 일군들을 위한 강습과 방식상학 같은것을 전국적으로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민청중앙위원회에서는 주체52(1963)년 겨울에 전국의 소년단지도원들을 위한 강습을 조직하였다.

강습에서는 항일아동단의 조직생활체계와 활동을 소년단사업에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과 구체적인 방도들이 취급되었다. 이와 함께 소년단분단조직들에서 항일아동단식으로 하는 회의와 활동을 보여주는 방식상학도 진행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구현해나가기 위한 과정을 통하여 소년단의 전반적면모는 새롭게 일신되었다.

소년단조직들에서 정연한 조직생활체계가 서게 되고 소년단원들은 조직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조직생활을 생활화, 습성화해나가게 되었다.

소년단에 대한 청년동맹의 지도를 개선강화하도록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유일사상교양을 통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가슴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하신것이다.

소년단원들속에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소년운동을 변함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그들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참된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선차적인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을 소년단원들에 대한 교양에서 기본으로 되게 하며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이 시기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은 학생소년들에게 당정책교양이나 계급교양을 할것이 아니라 하늘은 높고 푸르다든가, 땅은 둥글다든가 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교양이나 정서교양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방해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5(1966)년 6월 사로청중앙위원회의 일군들에게 새 세대들을 정치적문제자로 만들려는 위험한 경향에 대하여 정치적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은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에서 기본으로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소년단원들속에서 수령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어려서부터 수령님에 대하여 잘 알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려서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게 하는것이 새 세대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우리 식의 방법론이라고 하시면서 사로청에서는 소년단교양사업에서 우리 식의 방법론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매혹되었으며 혁명의 길에 나섰다. 그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나서는 길이 혁명가가 되는 길이며 혁명이 완성되는 길이라는것을 굳게 믿었으며 수령님을 흠모하고 따라야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반대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려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엄하게 지적하시고 소년단조직들에서 모임을 시작할 때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러 소년단원들이 어릴 때부터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사로청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청소년교양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소년단원들을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시켜나갔다.

사로청에서는 소년단조직들이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교양거점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연구모임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으며 《천리독서행군》을 모든 학생소년들속에서 충성의 독서운동으로 벌릴데 대한 요강을 내려보내어 소년단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자》(1-4),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등의 책읽기를 통하여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시기 학교들에서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김일성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로 정중히 꾸리고 소년단조직들에서 연구실을 통하여 소년단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7(1968)년 3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잘 하여야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수령님께 충실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학교들에 김일성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을 정중히 꾸리고 도록을 잘 만들어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사로청에서는 학교들에서 김일성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도록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갖추어놓고 연구실운영을 계획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해나가도록 하였다.

김일성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이 유일사상교양,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꾸려지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이 강화됨으로써 소년단원들의 정치사상의식수준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속에 새롭게 편찬된 《소년단실도록》도 소년단원의 날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 소년단원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직관교양, 실물교양과 지도를 개선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소년단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청소년출판물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시었다.

청소년출판물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소년단원들에게 혁명의식과 계급의식을 심어주고 그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9(1970)년 2월 사로청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하신 담화에서 우리의 청소년출판물은 단순히 오늘의 현실을 소개하고 선전하는데 머무름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전하고 개척하는 시대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청소년출판물들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리상사회의 앞날에로 힘있게 이끌어어나가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청소년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지지를 받는 참다운 교양자로 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새날》신문을 다시 발간하도록 하시고 신문의 편집발행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주체17(1928)년 1월에 창간된 《새날》신문은 우리 혁명투쟁력사에서 가장 오래고 불멸의 업적을 남긴 출판물이다.

《새날》신문을 다시 나오게 되는 목적은 《새날》신문의 창간과 더불어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완성하도록 새 세대들을 준비시키자는데 있었다.

《새날》신문은 지난날에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지주, 자본가도 없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광명한 새날, 조국해방의 새날에로 이끌었다면 오늘은 우리의 청소년학생들을 로동자, 농민의 계급적차이도 없고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도 없는 인류의 리상사회의 새날로 이끌어어나가는데 편집중심을 두었다.

인민학교 소년단원들을 위한 《소년신문》과 함께 중학교 소년단원들을 위한 《새날》신문이 다시 발간된것은 모든 소년단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혁명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들로 키우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사상적무기를 마련한 사변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소년단원들속에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이 강화됨으로써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직한 혁명인재로 키우며 우리 나라 소년

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소년단에 대한 청년동맹의 지도를 개선강화하도록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소년단사업의 특성에 맞는 교양형식과 방법으로 소년단원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로 믿음직하게 키워나갈수 있게 하신것이다.

소년단사업은 그 대상에 있어서 세계관의 기초를 닦는 시기의 어린이들과의 사업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 사업인것만큼 그 방법에 있어서도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소년단사업의 특성을 옳게 살려나가는것은 소년단조직을 생기발랄한 산조직으로 꾸리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소년단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소년단사업자체의 고유한 교양형식과 방법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소년단행사를 잘 준비하여 진행하는것은 어린이들의 사상교양에도 좋고 그들속에 규률성을 키워주는데도 좋다고 하시였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학생소년들속에서 행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으로 정치사상교양을 배합하여 진행하여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며 자연과 사회를 능동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전면적으로 발전된 혁명인재로 키워나갈수 있다. 어린이들은 소년단사업식, 집단체조 같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집단주의정신을 키우고 규률생활에 익숙되게 되며 체력을 단련하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4월 15일을 계기로 만경대를 비롯하여 각 도, 시, 군들에서 소년단원들의 련합모임행사를 해마다 전통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만경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는 전국의 도, 시, 군들에서 선발된 소년단대표들과 항일혁명투사들, 로력혁신자, 소년단지도일군들을 참가시키고 소년단사업식, 소년단입단식, 집단체조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항일혁명투사들과의 상봉모임, 체육경기, 예술공연들을 진행하고 기념식수도 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해마다 4월 15일을 뜻깊게 경축하는 소년단원들의 련합모임이 소년단원들의 심장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불씨를 심어주는 정치행사로 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동맹에서 이와 함께 소년단창립기념일을 맞으며 행사를 잘 조직하며 중요기념일과 국가적명절들에도 여러가지 소년단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학생소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에서 예술활동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학생소년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0(1961)년 2월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를 경축하기 위한 학생소년들의 예술공연준비정형을 료해하시고 민청에서 판을 크게 벌려 학생소년들의 예술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교시를 주신데 이어 공연의 작품들을 사상적내용이나 예술적기교에서 완성된 작품으로 완성시켜주시였다.

그리하여 전국소년예술소조종합공연은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당 제4차대회를 더욱 뜻깊게 장식하는데 기여하게 되었으며 학생소년예술활동에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학생소년예술활동이 소년단원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문화정서생활의 위력한 무기가 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양시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을 보아주시면서 설맞이공연이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으로 되어야 하며 학생소년들의 예술소조활동은 사회적 분위기를 세우고 학생들을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리하여 학생소년예술활동은 당정책적인 문제들을 아이들의 생활과 결부하여 동심에 맞게 그린 작품들로 소년단원들을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한편 소년단조직들이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과외교양거점을 통하여 학생소년들의 소질과 취미에 맞게 각종 소조활동과 여러가지 대중활동, 다채로운 야영활동을 조직진행함으로써 학생소년들을 건전한 사상과 풍부한 과학기술지식, 높은 문화예술적소양과 튼튼한 체력을 소유한 인재들로 준비되어나가게 되었다.

주체53(1964)년 4월에 열린 조선소년단 제1차대회에서는 민청의 지도밑에 모범분단쟁취운동도 활발히 벌어져 소년단조직이 튼튼히 꾸려지고 소년단원들속에서 도덕품성이 활짝 꽃피는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총화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우리 나라 소년운동에서 전환적계기로 될 소년단창립 20돐을 성대히 경축하도록 하시었다.

주체55(1966)년은 조선소년단창립 20돐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항일아동단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소년단은 지난 20년동안 자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왔으며 소년단원들을 당과 수령께 충실한 혁명의 참된 아들딸로 준비시키는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우리의 소년단원들은 평화적민주건설시기에는 《새 민주조선을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는 구호밑에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적극 도왔으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소년빨찌산을 무어가지고 고향마을을 지켜 용감히 싸움으로써 조선소년단원의 기개를 떨쳤다.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소년단원들은 재더미로 된 도시와 농촌, 공장과 마을을 일떠세우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로력투쟁을 적극 지원하였다.

지난 20년동안 준엄한 투쟁의 시련속에서 교양되고 단련된 수많은 소년단원들이 영웅으로, 로력혁신자로, 이름있는 과학자, 문화인으로 자라났으며 어제날의 소년단원들이 오늘은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고있는 자랑스런 현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키워온데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소년단창립 20돐을 충성의 대정치축전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사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사로청에서 호소문을 발표하도록 하시었다.

이에 따라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한 호소문은 소년단원들이 영웅의 나라, 천리마조선의 아들딸로 태어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훌륭히 준비해나갈 일념으로 가슴불타게 하였다.

소년단조직들은 창립 20돐을 맞으며 학생소년들속에서 학습열풍을 일으켜 학업성적을 한계단 높여나가는데 힘을 넣었다.

《소년신문》을 통하여 《어린이술자발표회》와 《풍년전람회》 등 지상연단을 널리 조직하는 한편 소년단원들의 학습열의를 높이기 위한 창작품전람회, 작문짓기대회, 과학이야기모임, 수학 및 자연과학연구소조활동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함경북도 경성군안의 소년단조직들에서 발기한 《조국통일소년》호전기기관차를 증정하기 위한 운동도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속에 세차게 벌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소년단창립 20돐을 계기로 소년단사업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로청에서 소년단지도원들의 강습, 방식상학, 경험교환회, 연구토론회 등을 널리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이에 따라 주체54(1965)년에 진행된 소년단사업방법연구토론회에 이어 사로청에서는 소년단사업방법과 관련한 논문집과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 소년단이 걸어온 자랑스런 성과들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종합체계화하여 소년단조직들에 내려보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소년단창립 20돐을 맞으며 사로청에서 기념론설편집사업을 잘하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완성된 론설 《사로청조직들은 소년단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자》는 주체55(1966)년 5월 29일 《로동청년》신문에 발표되어 전국의 소년단원들을 조선소년단창립 20돐을 뜻깊게 맞으며 소년단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온 나라의 관심속에 주체55(1966)년 6월 1일부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소년단창립 20돐을 맞으며 경축행사들이 특색있게 진행되었으며 6월 5일에는 모란봉경기장(당시)에서는 조선소년단창립 20돐경축 전국소년단련합단체대회가 성대히 열리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소년단창립 20돐경축 전국소년단련합단체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소년단원들의 앞날을 따듯이 축복해주시고 소년단원들과 기념촬영을 하신데 이어 전국소년예술소조종합공연도 보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성대히 진행된 조선소년단창립 20돐 경축행사는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품속에서 혁명의 계승자들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고있는 소년단원들의 행복하고 씩씩한 모습을 온 세상에 시위한 뜻깊은 정치축전이였으며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소년단원들의 불타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소년단창립 20돐 경축행사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지덕체를 갖춘 혁명의 후비대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고 하시며 소년단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5(1966)년 6월 6일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소년단사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자》에서 소년단사업에 대한 지도를 더 잘하여 학생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소년단사업에 대한 지도는 당이 사로청조직에 맡겨준 영예로운 임무이며 조직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새 세대들을 정치적으로 손잡아 이끌어주어야 할 중요한 책임을 바로 사로청이 맡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갖춘 혁명의 후비대로 준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은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이라고 밝혀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적극 따라배우며 항일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과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잘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소년단사업에서 중요한것은 학생소년들이 공부를 잘하는것이라고 하시며 학생들의 기본임무가 학습이라고 하여 학생들을 옛날 서당에서처럼 밤낮 책상앞에 붙들어앉히고 글만 외우게 해서는 안된다고, 웅변모임, 영화감상모임, 창작품발표

모임 같은것도 조직하고 혁명전적지답사와 명승고적들에 대한 견학도 자주 조직하는것이 좋다고,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조직하여야 학생들이 책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할수 있고 정치적식견과 문화정서적소양도 높일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학생들의 과외활동에서 좋은일하기운동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좋은일하기운동을 널리 벌려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며 학생소년들에게 체육이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옳게 인식시켜 그들이 높은 자각을 가지고 체력단련에 힘쓰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소년단원들을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소년단지도원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작 《소년단사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자》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소년단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주체적소년운동의 불멸의 대강이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소년단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소년단사업의 첫자리에 놓고 진행하도록 하시고 지덕체교양과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활동을 소년단원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참신하게 벌리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나라 소년운동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소년운동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3. 결 론

조선소년단이 걸어온 영광스럽고 자랑스런 력사는 소년단원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소년운동사상과 령도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이다.

백두에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주체적소년운동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청년동맹은 조직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소년단원들을 옳게 이끌어주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소년단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소년단, 조선로동당의 소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모든 소년단원들을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 소년혁명가로 준비시키는것은 현시기 소년단조직들앞에 나서는 기본임무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소년단조직을 강화하고 소년단원들을 잘 교양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모든 소년단원들이 전사회적인 관심과 떠받들림속에 주체조선의 기둥감들로, 나라의 역군으로 훌륭히 자라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새날》신문, 후비대, 소년운동